

# 히딩크 리더십 = '육바라밀'

지금 한국사회는 온통 히딩크 열풍에 빠져있다. 기업과 연구소 할 것 없이 '히딩크식 경영'과 '히딩크식 리더십'을 열창하며, '히딩크식 성공 키워

히딩크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전술을 아낌없이 전수했고, 자신의 열정과 믿음을 선수들에게 심어 주었다. 히딩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가 알든 모르든 그는 '다르마(Dharma)'의 법칙을 인식시켜 주었다. '공

축구에 아낌없이 베푼 셈이다. 참된 보시란 무엇을 베풀었다는 생각조차도 버리는 것이다. 히딩크는 폴란드 전을 승리로 이끈 뒤 국민적 우상으로 떠올랐다는 평가에 대해 "나는 다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할 뿐이다"며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법칙, 히딩크의 그 법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었다. 히딩크는 우선 선수선발에서부터 모든 선수에게 가능성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이행했다. 혈연, 지연, 학연 등 타성과 관성에 젖어 있던 한국 축구계의 구습을 타파하고 자신

는 비단여론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이 원칙을 지켜나갔다. 연습 때와 경기 때는 선수배 선수들 사이에 '반말'을 하도록 규율을 정했다.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믿었고, 선수들은

## 보시 믿음 바탕 비전·자신감 선물

심은 데 콩 난다'는 단순하지만 정법의 이치. 히딩크가 선수들에게 늘 강조한 것도 스스로의 정신세계에 걸 수 있다는 신념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럽축구에 대한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짜 축구를 질할 수 있는 법'을 선수들과 한국

"선수들에게 영감을 물린다"고 말했다. 한국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면서도, 자신이 그 역사를 쓰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비우고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그는 줄 것을 다 주었다"고 얘기할 때도 정작 그는 아무 것도 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드' 찾기에 한창이다. 하지만 히딩크 효과를 분석하는 술한 전문가들은 히딩크의 열정, 즉 철저한 수행자와도 같은 삶의 방식과 철학을 놓치고 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히딩크의 성공요인은 육바라밀과 일치한다.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의 여섯가지 실천덕목을 철저히 행한다면 누구나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다는 대승불교의 수행법인 육바라밀. 히딩크의 저력은 곧 육바라밀행이었다.

## 지계 선수선발·훈련 일관된 원칙 적용

이 세운 원칙으로 맞았다. 이것은 히딩크가 '한국축구 발전'이라는 명제에 제시한 일종의 계율이었다. 히딩크는 한국축구에 또 하나의 원칙을 제시했다. '기초체력'이 부실하고서는 어떤 목적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나치게 체력훈련에만 비중을 둔다'

그 몸을 충실히 따랐다. 계율은 속박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지킴으로써 몸과 마음을 청정히 해 대자유를 얻게 하는 것이다. 히딩크가 선수들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이것(대자유=승리)이다. 그리고 그는 원칙(지계)을 철저히 지킬때 마침내 목표(성공)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어떻게 하면 1승, 16강을 달성할 수 있을까?' 히딩크가 이 명제를 풀기 위해 선택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원칙과 소신, 그리고 자신감 없이는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히딩크는 월드컵 개막 50일을 앞두고 "지금 16강 진출 가능성은 반반이지만 하루에 1%씩 높아가겠다"고 말했다. 20여 일 뒤에는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그는 이 약속을 지켰다.

## 정진 작은성공 경계 '큰 꿈' 향해 도전

히딩크는 선지식들이 정진하는 수행자들을 꾸짖듯이 "조급해 하지 말라. 최선을 다하라"고 선수들에게 늘 강조했다. 모든 것은 시점인연(時節因緣)이 있고, 때가 되면 저절로 익을 것이라는 확신. 혹독한 체력훈련 등 전력강화 프로그램을 차근차근 시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신념이 있었기

히딩크는 16강전, 8강전, 4강전을 앞두고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 "우리에겐 더 큰 꿈이 있다"면서 1승과 16강에 안주하려 하지 않았고, 4강전에서는 독일에 패하고도 "우리의 꿈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정상을 향한 집념과 의지, 그것은 해탈을 향한 구도자의 끊임없는 열정과도 같은 것이다.

히딩크가 "한국축구는 기술보다는 체력이 문제"라고 진단했을 때, 국내 축구 전문가들 고개를 가우동했다. 체력보다는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설이었기 때문이다. 히딩크는 한국 축구의 장 단점과 상대 합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했다.

또 선수들 각각의 인성을 면밀히 파악했고, 세계 강호들과의 평가를 통해 냉혹한 자기평가를 했다. 훈련에서는 철저한 과학 시스템을 도입해 경기력을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히딩크의 철저하고도 치밀한 준비는 경

## 반야 '나와 남' 분석 치밀, 합리적 용병술

특히 히딩크는 각국 리그를 마친 직후 한국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대비할 여유는 커녕 피로도 제대로 풀 여유가 없는 외국선수들의 체력문제에 주목했다. 그는 상대팀보다 10% 더 뛰어난 체력을 갖추면 10% 더 훌륭한 경기를 펼칠 수 있다는 것을 간파했다.

기에서 그대로 빛을 발했다. 경기의 흐름과 상대를 읽는 용병술이 빛났고, 세계는 그의 '해인'을 칭찬했다. 지혜란 생명의 본질을 체득했을 때 저절로 나타나는 것. 적어도 축구에 관한 한 히딩크는 '깨달은 자'였다.

한명우 기자

## 인욕 '안티 히딩크' 비난도 묵묵히 대응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지만 '회의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심지어 '안티 히딩크'를 부르짖는 사이트에서는 원색적인 비난이 난무했다. 그러나 히딩크는 그런 순간에도 자신의 프로그램을 묵묵히 실천해갔다. 그리고 무다가 펼쳐질 날만을 기다렸다. 배우는 오직

다. 그리고 마침내 감동적인 연기로 모든 이들을 환호하게 했다. 그렇지만 그 영광의 무대 뒤에는 많은 좌절과 고비가 있었고, 그것을 뛰어넘으려는 인내와 노력이 있었다. 인내하지 않으면 괴로움과 번뇌(혹구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진리. 히딩크는 그것을 증명해 보였다.

이름용과 안정환이 페널티킥을 실축했을 때도 히딩크는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말대로 그것은 단지 '경기의 한 부분'일 뿐이었다. 경기 내내 그는 안정을 잃지 않았고, 선수들에게 집중을 요구했다. 히딩크가 입버릇처럼 말했던 '경기를 지배한

미국전과 이탈리아 전에서 한국은 선취점을 먼저 빼앗기고도 무승부와 승리를 일궈냈다. 예전의 한국축구라면 일시에 힘을 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달랐다. 선수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특히 이탈리아전에서의 히딩크의 용병술은 흠

## 선정 "평상심 유지하라" 집중력 강화

다'는 것은 안정과 집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 그는 훈련에서 이기고 있을 때와 지고 있을 때, 그것도 각기 다른 점수 차의 상황을 설정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한 치의 흔들림 없는 평상심을 유지할 때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며 마인드 컨트롤로 집중력을 강화시켰다.

사 흔들리지 않는 선정의 힘으로 '승리'라는 화두를 풀어가는 모습이었다.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임을 선수들과 히딩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독일전 패배직후에도 "문제는 우리에게 있었다"며 끝까지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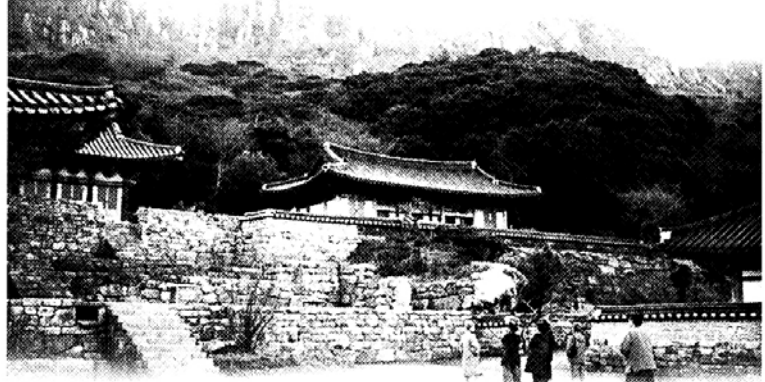
## 2002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인을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 21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대승불교·비교종교론 불교상당론·인도불교사·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경토사상	무전장스님(본대학학장)·최봉수(동국대학교수)·주명철(동국대학교수)·오국근(동국대학교수) 정병호(동국대학교수)·김상현(동국대학교수)·김성영(승가대학교수) 묘주스님(동국대학교수)·강희옥(동국대학교수)·차차석(동국대학교수)				
2년 교과목	법화사상·반야사상·화엄사상 불교사회복지론·불교학개론·선사상 불교미술·밀교사상·포교방법론	암도스님(진포교원장)·박종(동산불교대학교수)·박윤식(동국대학교수)·권만준(동국대학교수) 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권기중(동국대학교수)·최종석(동국대학교수)·윤영수(문화재단위원장) 홍석스님(승가대학교수)·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김호규(동국대학교수)·인한스님(동국대학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고
· 불교학과 (200명) (정규반·주간반·통신반) · 한문학과 (50명) · 불교미술학과 (30명) · 우리총과 (30명)	불교를 적극 신뢰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2년 6월 15일 ~ 2002년 8월 3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반) · 매주 화요일 오후 4시(우리총반)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입학일시 2002년 8월 10일(토) 오후 5시(동산불교회관)						
본대학 사무국 Tel. 02)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org						
· 서울 : 보령각(조계사앞) 02)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425-4097						
· 대전 : 보문사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232-7542 · 제주 : 예전수보리원터 064)749-4455						
* 특전사항 : · 신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고시를 거쳐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불교학과)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매일 아침 나무아미타불을 청명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어 갑시다. 제 6차 전국 염불만일회 2002년도

##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여름 성지대회



- 매일 나무아미타불을 부릅니다 - 전국 염불만일회에서는 2000년부터 염불 10대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전남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를 순례하였고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 여름 성지대회를 마련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만일회 회원과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 ◆ 일 시 : 2002년 8월 5일 ~ 7일(2박 3일) (서울, 경기지역 출발안내)
- ◆ 장 소 : 전남 해남 땅끝마을 미황사
- ◆ 신청 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 참가비 : 40,000원(염불조끼교재및식사대금)
- ◆ 교통편 : 개인별 미황사 15일 오후 2시까지 도착
- ◆ 신청방법 : 전화 신청후 은행계좌 입금
- ◆ 국민은행 : 023-21-0667-309 : 염불만일회
- ◆ 우 편 : 053-02-128104 : 염불만일회
- ◆ 출발장소 : 서울조계사 앞
- ◆ 출발시간 : 2002년 8월 5일(월) 오전 6시
- ◆ 교통편 : 관광버스(단, 동참자는 참가비, 교통비포함 65,000원을 미리접수 바랍니다.)

##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특별시 중로구 수송동 46-20 ☎02)732-1215~7 / FAX 02)732-1207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